

대한민국 행복도시 '한 자리에'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국내 지자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공유했다.

국내 35개 지자체가 소속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공직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이어 '지방분권과 주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라이너 아이헨베르크 스위스 프리부르크대 교수와 안권욱 고신대 교수, 히로이 요시노리 일본 교토대 교수가 각각 지방분권과 시민행복을 위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는 발제에 나섰다.

먼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라이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1주년 정기총회 '지방분권과 주민행복' 주제로 한 심포지엄 진행

김승수 전주시장 등 단체장 참석 행복정책 고민

아이헨베르크 교수는 "스위스의 강력한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흔히 우려하는 바와 달리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건과 타국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시민이 행복한 스위스 민주주의 시스템'을 주제로 스위스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를 분석해 설명하고, 시민이 행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안 교수는 국내 최고의 스위스 전문가이자 분권 전문가로, 지방분권전국회의의 공동정책위원

장과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 지자체 행복정책의 전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는 행복정책을 추구하는 일본 지자체 모임인 '행복리그'와 일본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행복정책을 추진해온 도쿄 아라카와구 자치종합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토대로 일본 내 행복정책의 현황과 쟁점, 나아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분권 전문가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이지훈 국민총 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과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의 상임공동대표, 정선철 삼육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시는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복정책 실현과 해법을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향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정책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국내외 행복정책 우수사례를 배우고 실천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39명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결성된 단체장들의 모임으로, 현재 지자체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행복정책 실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행복연수, 행복심포지엄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국내 35개 지자체가 소속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출범 1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회 3일차... 전북 선수단, 종합순위 8위 기록

육상트랙 임준범, 5000m · 1500m 출전 한국신기록 세워 3관왕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일차를 맞아 전북도 선수단은 17일 현재 금 27, 은 36, 동 37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8위에 올라있다.

전북도 선수단은 17일 경기에서 육상트랙 임준범 선수가 남자 5000m(T13), 1500m(T13)에 출전해 한

국신기록을 세우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또 육상필드 문지경 선수는 여자 창던지기(F33)에서, 김정호 선수는 남자 포환던지기(F55)에서 각각 대회신기록과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사이클에 이도연 선수는 여자 개인도로 60km(H4), 감용기 선수는 남자

개인도로 80km(H3)에서, 수영 최은지 선수는 여자 접영 50m(S6)에서, 보치아 김도진 선수는 혼성 개인전 BC1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게이트볼 여자부는 준결승에 진출해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또 육상필드에서 윤한진 선수는 남자 창던지기(F33)에서, 박우철 선수는 남자 포환

던지기(F56)에서, 사이클에 박진하 선수 남자 개인도로 75km(C2-3)에 출전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15일~19일까지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전북도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선수 305명, 임원 및 관계자 170명 등 총 475명이 출전해 전북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 도입 의무화

교육부, 교육실태회복추진단 회의 통해 확정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따라 불참시 패널티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육실태회복추진단 제14차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에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 패널티를 받게 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유치원은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18년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59.4%로 저조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시작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일환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보이콧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예산을 앞둔 학부모들은 우선모집으로 11월1일부터 6일까지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유아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나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에 대한 우선모집하고 11월12일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유치원이 배정된 학부모는 14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어 일반모집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대기자 관리 및 추가모집 기간으로 운영된다. 일반모집 대기자는 12월31일까지만 대기자 자격이 유지되며, 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포기 된다.

한편, 교육부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 운영비 등 재정지원사업의 조건부 차등지원 등 세부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 토론회

전북도가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SOC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 대도와 기반 마련' SOC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내 SOC 관련 유관기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도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게 된 의미 있는 해" 라면서 "앞으로 금년에 반영된 공항,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들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중심의 동서발전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실군의의회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옥정호 붕어섬(외앗남)

천담구담마을

관촌 사선대

임실군의의회